

문화기호학에서 본 수호랑과 빙둔둔의 비교 분석*

위정란** · 정소영***

목 차

1. 서론
2. 연구방법
 - 2.1 용어
 - 2.2 롤랑바르트의 문화기호학
 - 2.3 선행연구
3. 문화기호학으로 본 호랑이와 수호랑
 - 3.1 기표
 - 3.2 기의
 - 3.3 수호랑
4. 문화기호학으로 본 판다와 빙둔둔
 - 4.1 기표
 - 4.2 기의
 - 4.3 빙둔둔
5.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수호랑'과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빙둔둔'을 롤랑바르트의 문화기호학으로 분석하였다. 수호랑은 한국 호랑이, 그중에서도 백호를 모티브로 한 마스코트이다. 한국호랑이의 1차의미는 한반도에 서식했던 고양잇과 표범속에 속하는 용맹스러운 동물이고, 오랜 세월동안 민화, 구비문학 등에 자주 등장한 대한민국을 표상하는 대표동물이고, 2차 의미는 용맹함, 수호자, 상서로움을

* 이 논문은 2022년도 광운대학교 연구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광운대학교 동북아문화산업학부 석사과정생(제1저자)

*** 광운대학교 동북아문화산업학부 교수(교신저자)

뜻한다. 수호랑은 국가 안녕의 수호자이자 흰색 민족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백호를 모티브로 삼되, 아기 백호를 내세워서 용맹하고 무서운 기운을 없애고 친근하고 생동적으로 디자인하였다. 실존동물이 아닌 백호가 가지는 신성한 상징성은 88년도 올림픽 호돌이를 뛰어넘을 뿐 아니라, 이를 승계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 중국 판다의 1차 의미는 800만년 전부터 중국에 서식하며 주로 대나무를 섭취하는 곰과 판다목에 속하는 동물이고, 2차 의미는 용맹하지만 인간계와 신계를 넘나드는 자비롭고 신성한 동물이다. 빙墩墩은 이러한 판다를 모티브로 삼은 마스코트로, 전통적인 2D 디자인에서 벗어나 중국의 과학기술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미래지향적 이미지로 탄생시켰다. 3D의 얼음 테마를 활용해 동계올림픽을 표현하면서도 과학기술 강국임을 보여주었다. 또한 부드러움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 둥근선과 미소로 디자인했으며 손바닥의 하트모양으로 친근함과 귀여움을 더했다. 가슴에 새겨진 올림픽 오륜기를 가진 빙墩墩은 판다의 2차 의미를 확장하여 평화와 우정을 넘어서 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글로벌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키워드: 문화기호학, 수호랑, 빙墩墩, 한국 호랑이, 중국 판다

1. 서론

올림픽은 국경을 초월한 종합 스포츠 축제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문화 교류의 장(場)이기도 하다. 올림픽 기간 중 고국의 명예를 걸고 우열을 가리는 경기들이 진행되지만, 참가자와 관람객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들이 열리기도 한다. 개막행사와 폐막행사를 차치하고라도 관람객들을 위한 먹거리와 볼거리 위주의 문화 행사가 곳곳에서 진행되기도 하고, 개최되는 도시가 수도에서 멀다 하더라도 올림픽을 위한 도로나 시설 인프라 확장으로 인해 국내외 관광객들의 접근이 용이해져서 올림픽 기간 내 그 도시는 줄곧 축제의 장이 될 수 밖에 없다.

올림픽이 열리는 나라와 도시는 국제적인 위상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게 되는데, 그중 커다란 몫을 차지하는 것이 그 나라와 도시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제작된 마스코트들이다. 최초의 올림픽 마스코트는 공식적은 아니었

지만, 1968년 그레노블 올림픽에서 시작되었다. 스키를 탄 작은 남자로서, 동계 올림픽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구현해 낸 것이다. 이러한 마스코트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은 1972년 뮌헨 올림픽에서이다¹⁾. 이후 이러한 마스코트들은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해당 국가와 도시의 자연환경이나 문화유산을 알리는 상징적인 존재들이 되었다.

예를 들어,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에서 러시아는 곰을 기반으로 한 ‘미샤’라는 마스코트를 선보였는데, 러시아의 강인하고 독립적인 이미지를 세계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는 미국의 대표 동물인 흰머리 독수리를 의인화 한 ‘독수리 샘(Sam the Olympic Eagle)’이 출현하였고,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는 호랑이를 의인화 한 ‘호돌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수호랑’이 올림픽의 마스코트로 선정되었다. 중국은 2008년 베이징 하계 올림픽과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 각각 ‘징징’과 ‘빙든둔’ 마스코트를 통해 국보인 판다를 세계에 선보였다. 이처럼 올림픽 마스코트들은 글로벌 무대에서 개최국이나 개최도시의 문화적 자부심과 소프트 파워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며, 전략적인 디자인을 통해 이미지와 영향력을 극대화한다.

올림픽의 홍보대사인 마스코트는 개최국이나 개최도시의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동물, 식물, 신화 속의 캐릭터 등 다양한 소재를 이용하여 친근한 이미지로 디자인되었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2D 뿐 아니라 3D로도 제작이 되었다. 또한 국가 홍보를 넘어서, 기념품, 의류, 잡화 등으로 제작이 되어 올림픽 경제효과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1)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2014,6.1).Olympic Games mascots. Olympics.
<https://olympics.com/ioc/news/olympic-games-mascots>(The first Olympic mascot – which was not official – was named “Schuss” and was born at the Grenoble Olympic Games in 1968. A little man on skis, half-way between an object and a person, it was the first in a long line of Olympic mascots. It was not until the Munich 1972 Olympic Games that the first official Olympic mascot, “Waldi”, the dachshund, was created. Since then, mascots have become the most popular and memorable ambassadors of the Olympic and Paralympic Games.)

이러한 마스코트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디자인 분야에서 색채, 마스코트의 의상, 비주얼 효과 등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는데, 본고는 인문학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중 올림픽 마스코트의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개최국의 정체성과 문화적 상징 의미를 기호학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다만 편폭의 제한으로 인해, 본 연구는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과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의 마스코트인 수호랑과 빙墩墩으로 제한한다.

2. 연구 방법

2.1 용어

본고는 사회문화의 현상을 기호체계로 분석한 롤랑바르트의 문화기호학을 분석 체계로 삼는다. 다만 롤랑바르트의 문화기호학을 이해하려면, 소쉬르와 퍼스의 기호학 이론의 용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으므로, 문화기호학의 기초가 되는 그들의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소개하고 본고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롤랑바르트의 문화기호학을 소개하기로 하겠다.

(1) 기표(signifiant)와 기의(signifié)

기표와 기의는 소쉬르에서 시작된 용어로, 이후 롤랑바르트 문화기호학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된다. 그는 의미하는 기의(signifié)는 해당 대상의 실체이고, 기표(signifiant)는 청각영상 혹은 문자이다.

‘개’를 예로 들면, ‘ㄱ+ 개’의 조합인 ‘개’가 기표가 되는 것이고, 포유류 깃과에 속하고 반려동물로 많이 키우는 그 동물의 실체가 기의가 되는 것이다. 다만 ‘중요한 것은, 소쉬르가 말한 기표와 기의의 관계는 자의적(arbitraire)이라는 점이다. 즉 ‘개’를 예로 들어 보면, ‘개’의 실체는 ‘개’라는 일련의 음성들과 전혀 내적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이러한 자의성은 문화 방면에도 확대

적용된다. 소쉬르는 무언극(無言劇)같은 표현 양식들도 당연히 기호학에 속하고, 규약에 의거해서 표현이 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머리가 땅에 닿도록 무릎을 꿇고 황제에게 아홉 번 절을 하는 예절 기호들도 규칙에 의해서 규정된다는 것이다²⁾. 그는 기표는 자의적이기 때문에 사회적 약속만 있다면 얼마든지 다른 기표로 교체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종합해보면, 소쉬르의 기표는 언어학에서 실질적인 음성이 아닌, 한 언어 체계 안에서의 음소들로 결합된 문자를 의미하고, 기의는 그것과 사회적 약속에 의해 규정된 실제 개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 둘 사이는 연관성이 아닌 자의성으로 강제되고, 아주 초보적이지만 문화영역에도 적용되었다.

(2) 랑그(langue)와 파롤(parole)

랑그는 언어의 공시적 연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틀이다.

예를 들면, 한국어는 총 19개의 자음과 총 21개의 모음으로 이루어진 언어 체계이고, 이것이 랑그의 기본 틀이다. 한국어에서는 파열음이 조건에 따라 실제적인 음가가 다르지만, 우리는 상보적 분포에 따라 하나의 기호로 사용하고 있고³⁾, 이 기호체계가 랑그인 셈이다. 즉, 랑그란 기호들 사이에서 차이의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한국어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주어+목적어+서술어’인 것도 랑그의 체계이고, 중국어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주어+서술어+목적어’ 역시 랑그의 체계이다. 즉 랑그 체계의 구성원들은 랑그의 구조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들로 그 가치와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파롤(parole)이란 발화의 개별적인 행위들을 말한다. 우리는

2) 에이스케 고마즈 편, 김현권 역(2018), 『페르디낭 드 소쉬르 제 3차 일반언어학 강의』, p.25

3) ‘아기’의 ‘기’와 ‘기차’의 ‘기’는 실제적인 음가가 다르다. 한국어에서는 파열음의 일부가 문두에 나왔을 때 유기의 성질을 갖는다. 마찬가지로 ‘비빔밥’에서 4개의 ‘ㅂ’의 실제적인 음가가 조건에 따라 모두 다른데, 이처럼 조건에 따라서 명확하게 소리의 구분이 가능할 때, 우리는 상보적 분포라고 하고, 이 역시 구조주의 언어학의 랑그 체계에서 나타나는 개념이다.

표준어 랑그체계에서는 백합과에 속하는 풀 중의 하나를 ‘부추’라고 지칭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구지’ 혹은 ‘푸추’, ‘줄’ 등으로 발화하기도 한다. 이런 개별 발화를 파롤이라고 할 수 있다. 폴 코블리(2022)는 이를 문화기호학에 적용시켜서, 랑그를 공동벽장에 비유하고, 파롤을 그 벽장의 사례들을 구성하는 다양한 기호로도 해석하였다.

(3) 통합과 계열

소쉬르의 개념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통합과 계열이다. 한국어의 “나는 밥을 먹는다”를 예로 들면, ‘나’를 대체할 수 있는 단어로는 ‘엄마, 아빠, 내 친구, 강아지, 고양이’ 등 [+유생]의 의미를 지닌 형태소의 집합이 있고, ‘밥’을 대체할 수 있는 형태소로는 ‘빵, 간식, 사과, 사료’ 등 섭취가 가능한 단어들의 집합이 있다.

‘나는 밥을 먹는다’는 ‘나는’, ‘밥을’, ‘먹는다’ 이 세 가지 구성 요소의 통합 관계로 이루어진다. ‘나’는 [+유생]의 다른 단어들로 대체되는데, [+유생]의 의미를 지닌 ‘엄마, 아빠, 내 친구, 강아지, 고양이’ 등은 ‘나’와 계열적 관계를 이룬다.

이를 문화기호학에 대입해 보자. 한복을 입을 때 머리를 쪽지고, 전통적인 의상을 입고, 고무신을 신는다. 하지만 블랙핑크가 입어서 전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던 한복을 살펴보면, 긴 머리에 글로벌화 된 한복을 입고, 워커를 신고 있다. ‘쪽진 머리+ 전통 한복+ 고무신’이 통합적 관계라면, 쪽진머리를 대체한 긴 머리, 전통 한복을 대체한 글로벌화 된 개량 한복, 고무신을 대체한 워커는 각각 그들과 계열적 관계라고 할 수 있다.

(4) 해석체

해석체라는 개념은 미국의 기호학자인 찰스 퍼스(Charles Peirce)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미국의 철학자이자 기호학자이다.

퍼스의 기호는 표상체, 대상체(물체), 해석체로 나뉜다. 소쉬르의 이원적 구

조와는 확연하게 다른 지점이 해석체이고, 이것이 롤랑바르트의 2차 의미와 관련된 부분이다. 퍼스의 표상체는 소쉬르의 기표에 해당되고, 대상체는 기의에 해당된다. 새롭게 출현한 개념이 해석체이다.

흰 국화를 예로 들어 보자. [흰+국화]가 표상체가 되고, 주로 가을에 꽃이 피는 국화와 국화속의 여러해살이풀이 그 대상체(물체)이다. 국화는 개량된 역사가 길어서 색깔과 모양이 다양한데, 한국에서는 보통 장례식에서 흰색 국화를 사용한다. 이때 흰색 국화의 해석체는 ‘애도’의 의미이다.

즉 세상에 존재하는 기호는 대부분 정신적, 문화적 개념들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해석체이다. 이 해석체는 민중과 언중들의 과거 경험에서 비롯되기도 하고, 그 집단의 규칙이나 습관에서 기인하기도 하며, 그들의 오랜 정서에서 굳어지기도 한다.

퍼스의 삼원적 분류에서의 해석체는 다음 절에서 논의 할 롤랑바르트의 2차 기호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2.2 롤랑바르트의 문화기호학

롤랑바르트(Roland Gérard Barthes)는 프랑스의 구조주의 철학자이자 기호학자, 문학가, 문화비평가이다. 그는 『기호학의 요소들 *Éléments de sémiologie*』에서 소쉬르의 구조의 개념을 인정했다. 하지만 소쉬르가 기호는 자의성을 갖는다고 한 것에 반하여, 바르트는 도상적 기호, 유연적 기호, 자의적 기호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들은 서로 구분되는 개념이 아니라, 일정정도 서로를 포함하는 구조라고 보았다.⁴⁾

이는 퍼스가 제시한 도상, 지표, 상징과도 매우 흡사한데⁵⁾, 국기나 제복 같

4) 롤랑바르트 저, 변광배 역(2015), pp.38-41

5) 퍼스의 도상(Icon)은 기호가 그 자체로 대상을 닮은 경우를 말하고, 지표(Index)는 기호와 대상이 물리적이거나 인과적인 연관성을 가질 때, 상징(Symbol)은 기호가 대상과 임의적으로 맺어진 관계를 가리킨다.

이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시도 규약에 의해 정의되므로 도상적 기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바르트는 소쉬르의 구조를 인정하고 많은 부분을 기호학에 차용했지만, 그가 탈구조주의자로 불리는 이유는 그가 기호의 자의성을 넘어서서 유연성과 도상성에 좀 더 착안을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연성과 도상성은 그가 기호를 해석함에 있어서 사회현상과 문화현상에 좀 더 주목하게 한다. 그래서 소쉬르의 랑그와 빠롤은 롤랑바르트의 문화기호학에서는 문화적 요소로까지 적용된다.

즉, 소쉬르의 랑그를 요리의 차원으로 적용을 한다면, 빠롤은 가족마다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조리법이거나 민족의 전통으로 차별화되는 레시피일 것이다. 예를 들어 북경오리구이가 랑그라면, 각 지역, 각 가정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조리법들은 파롤이 될 것이다.

또한 에피타이저부터 디저트까지를 통합관계로 본다면, 수많은 에피타이저와 메인요리, 디저트를 대체할 수 있는 계열의 집합이 있고, 계열의 집합에서 한 개씩을 선택한 코스는 통합적 관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롤랑바르트의 문화기호학은 텍스트로 적용된다. 롤랑바르트는 기호체계를 1차 의미작용(기표)과 2차 의미 작용(기의)으로 나누었는데, 그가 말하는 1차 의미작용은 소쉬르의 기표와 기의를 합친 개념이다. 즉, 소쉬르의 기표와 기의를 합친 개념이, 롤랑바르트의 기표이다. 이 개념은 이견이 나올 수 없는 물리적 개념이다.

‘흰 국화’라는 문자(혹은 소리) 기표와 그 실체인 국화과에 속하는 흰색의 꽃인 기의가 합해져서, 롤랑바르트에 의하면 기표가 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 기의는 사회적, 문화적으로 가지고 있는 심층구조의 해석체들을 말한다. 조문과 애도의 의미는 기의이지만, 롤랑바르트의 기의는 사회적·문화적 집단마다 해석을 달리한다.

롤랑바르트는 더 나아가 1차 의미작용(기표)은 2차 의미작용(기의)을 생성하고, 이러한 의미작용들은 사회문화의 내포적 기호로 신화와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낸다고 하였다.

즉, 롤랑바르트의 의미작용은 1차 질서체계(기표)와 2차의 질서체계(기의)로 나뉘고, 1차 체계는 현실, 자연의 계층이며, 2차 체계는 문화 계층임을 알 수 있다. 쉽게 말해서, 그의 1차 질서체계는 소쉬르의 ‘기표+ 기의’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2차 질서체계는 퍼스의 해석체와 유사하되 신화와 이데올로기 개념이 부가되는 내용이다.

2.3 선행연구

올림픽과 마스코트가 대중들의 관심을 크게 받는 것과 별개로 이에 관한 연구는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먼저, 한국에서의 연구들은 대부분 올림픽 마스코트 디자인의 실용성과 기능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 마스코트가 단순한 시각적 매력을 넘어 실제 마케팅 및 브랜딩 전략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한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한혜진(2015)은 평창 동계올림픽 마스코트를 색채의 각도에서 분석하였는데, 짙은 파란색과 흰색과 같은 전통 상징 색채가 민족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며 마스코트의 시각적 매력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또한 색채 심리학 원리를 이론으로 하여, 마스코트 색채 선택은 관객의 감정적 반응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현대 디자인 트렌드를 반영한 마스코트는 문화와 정서 교류의 교량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방청의, 한석원(2021)은 1982년부터 2022년까지 아시안게임 마스코트들의 민족 문화 상징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퍼스의 기호학 이론을 통해 마스코트의 동작성 이미지의 시각적 효과를 연구하여, 주최국의 문화적 특징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논의하였다. 즉, 마스코트 디자인은 민족 문화의 전통뿐만 아니라, 다양해진 문화 요소들을 반영한 현대적 혁신 요소들도 내포되어 있다는 점을 밝혀냈다. 이러한 주장들을 통해, 미래의 마스코트 디자인과 문화 전

과 연구에 중요한 시각, 방법론적 지침을 제공하였으며, 마스코트의 기호학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글로벌 문화 교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박소연(2014)는 마스코트의 시장 지향성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한국 대중을 대상으로 한 올림픽 마스코트 디자인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통해, 마스코트 디자인의 시장 지향성을 분석 하였다. 설문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은 연령대와 성별의 그룹별로 감정적 공감과 문화적 정체성을 유발할 수 있는 디자인을 다르게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이 연구는 마스코트 디자인 과정에서 목표 시장의 선호도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혁신성과 시장 수요 간의 균형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황순선(2014)은 문화 전파의 관점에서 사례 분석을 통해 마스코트가 문화 전파의 도구로서 한국 문화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관심을 어떻게 증대시키는지를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 마스코트를 통해 한국의 현대성과 전통성이 결합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마스코트가 국가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 외에도 한국에서의 마스코트 연구는 대부분 미대 디자인 계열이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중국의 연구 역시 디자인 계열의 연구가 주를 이루지만, 전통문화와의 융합을 제시하는 논문들이 많았다. 대부분은 마스코트가 국내외 시장에서 문화와 브랜드를 어떻게 전파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Cao Yong(2008)은 디자인 과정을 보여 주고 마스코트가 단순한 시각적 기호를 넘어, 중국의 국가 이미지와 문화적 자신감을 전달하는 문화적 매개체라고 주장하였다. Yang XinZe(2022)는 마스코트 디자인에서 중국 전통 문화 요소의 예술적 표현에 대해 논의하고, 디자이너들이 현대적 미학과 문화적 깊이를 갖춘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전통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마스코트 디자인이 전통 문화의 핵심 가치를 반

영하고, 세계화된 배경 속에서 미적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Xu Shuo(2020)은 중국의 전통적인 상징 요소를 마스크트 디자인에서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마스크트는 중국 전통 문화와 현대 디자인의 융합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Liu LingXiao(2020)는 관광 브랜드 홍보의 차원에서 마스크트를 분석하였다. 마스크트의 독특한 이미지와 스토리텔링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을 어떻게 끌어들이며, 관광 목적지의 매력을 어떻게 증대시킬 수 있는지 논의하였다. 성공적인 마스크트 디자인은 개최국 및 개최도시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젊은 세대 소비자를 유치하는 데 커다란 잠재력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기존 연구들은 위와 같이 디자인계열에서 나온 것들이 대부분으로, 문화인문학의 배경에서 나온 논문들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고는 디자인 중심의 마스크트 분석에서 한층 더 깊이 들어가 개최국이 가진 마스크트의 기표와 기의를 개최국의 정체성과 연결해 문화기호학에서 분석하려 한다.

3. 문화기호학으로 본 호랑이와 수호랑

3.1 기표(1차 의미)

2018년 평창에서 개최된 올림픽의 마스크트의 이름은 수호랑으로, 호랑이를 의인화한 마스크트이다.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이전, 1988년 서울 올림픽 마스크트도 호랑이였다. 우리나라에서 열린 하계와 동계 올림픽 모두 무서운 용맹스러움을 가지고 있는 호랑이에게 전통적이면서도 친근한 이미지를 부가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마스크트로 제작해 낸 것이다.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동물을 호랑이로 지정하고, 이를 올림픽 홍보의 얼굴로 친근하게 디자인했는데, 우리는 지금 한반도에 존재하지 않는 호랑이가 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동물이 되었는지, 호랑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미지를 플라바르트의 1차의미(기표)와 2차의미(기의)로 나누어 살펴보려 한다. 수호랑의 이미지는 호랑이의 2차의미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고, 2차의미 분석과 더불어 수호랑의 이미지도 분석할 것이다.

실제로 한반도에 호랑이가 거주했던 적이 있다. 호랑이는 고양이과 표범속에 속하는 대형 포유류로 19세기 후반까지 아홉 종의 호랑이가 존재하였으나 그중 네 종이 멸종하여 현재 벵골·시베리아(아무르)·인도차이나·수마트라·말레이의 모두 다섯 종이 존재한다. 이 중에서 시베리아 동부, 러시아 극동지역, 중국 동북부에 걸쳐 서식하는 시베리아호랑이(Siberian tiger(아무르호랑이P. tigris altaica, Amur tiger)로도 불림)가 한반도에 살았던 백두산호랑이, 즉 한국호랑이라고 알려져 있다.⁶⁾

한국호랑이는 한반도에 살았던 시베리아호랑이를 지칭한다. 국립민속박물관에서 2021년 11월30일 발간한 『한국민속상징사전 : 호랑이 편』에 따르면 호랑이 중에서도 가장 큰 한국호랑이는 주로 해발 500~800m의 높지 않은 산림지대에 서식하며 보통 하루 80~100km를 이동, 영역을 순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 국토의 70% 이상이 산지이며 산맥으로 연결된 한반도는 호랑이의 서식조건과 맞아 오래전부터 호랑이는 우리 민족과 함께해왔다. 이는 『삼국사기』나 『조선왕조실록』 등 역사서와 고대 벽화, 민간 설화 등으로 확인된다.⁷⁾

또한 문화유산에서도, 시베리아 호랑이가 한반도에서 존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곡리 암각화는 태화강 상류의 지류 하천인 대곡천의 수직절벽에 위치해 있으며, 너비 약 8m, 높이 약 4.5m 규모의 중심 암면과 10곳의 주변 암면에 312점 정도의 그림이 새겨져 있다. 특히 동물 그림은 생태적 특

6) <https://folkency.nfm.go.kr/topic/detail/10284>.

7) <https://www.segye.com/newsView/20211219509896>

징을 매우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어 고래, 거북, 바다사자, 새, 상어, 물고기, 사슴, 멧돼지, 호랑이, 표범, 담비, 늑대 등 약 20여종의 동물을 구분할 수 있다.⁸⁾

이렇듯 호랑이가 한국에 서식했었거나 지금도 백두산 일대에 서식한다는 사실은 여러 유적이나 문헌들에 드러난다. 이러한 호랑이가 개체수가 감소한 것은 조선시대 농본주의의 영향으로 산지가 없어지고 농토가 많아진 원인도 있고, 일제 강점기에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동물을 없앤다는 취지를 내세워 한민족의 영수인 호랑이를 멸절시키는 수렵정책을 세웠기 때문이다⁹⁾.

지금 우리나라에는 한국 호랑이가 더 이상 서식하고 있지 않지만, 그 흔적은 지명에서도 보인다. 국토지리정보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호랑이 관련 지명은 389개에 달한다. 그 중 전남이 74개로 가장 많았고, 경북이 71개, 경남이 51개 순이다. 종류별로는 마을 명칭이 284개, 산의 명칭이 47개, 고개명이 28개 순이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포항의 호미곶, 범골, 호암산 등이 모두 호랑이와 관련된 지명들이다¹⁰⁾.

지명 뿐 아니라, 신화, 전설, 민담 등 설화 속에서도 호랑이는 단골소재이다. 한반도에 서식하지 않았다면 이리 오랜 역사를 한민족과 같이 하지 못했을 것이다. 한국구비문학대계에서 ‘호랑이 구비문학’으로 필터링했을 때, 무려 1859개가 뜬다.¹¹⁾ 이는 단군신화의 주인공인 ‘곰 구비문학’으로 필터링했을 경우의 737건보다 2배 이상이 많은 숫자이다. 또한 십이지 동물과 관련한 설화 1283건 중 호랑이 관련 설화는 약 40%(510건)을 차지한다.¹²⁾

지명에서조차 흔하게 등장했던, 그 많던 호랑이는 100여년전부터 개체수가

8) <https://www.ulsan.go.kr/s/bangucheonpetroglyphs/contents.ulsan?mId=00100100200000000>

9) <https://www.segye.com/newsView/20211219509896>

10) https://www.ngii.go.kr/kor/board/view.do?sq=56154&board_code=report

11) <https://kdp.aks.ac.kr/inde/search?itemId=14&q=query%E2%80%A0ED%98%B8%EB%9E%91%EC%9D%B4%20EA%B5%AC%EB%B9%84%EB%AC%B8%ED%95%99%20%EC%88%98&searchLog=y>

12) <https://www.segye.com/newsView/20211219509896>

급격히 감소했는데,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우리민족의 표상이 된 용맹스런 호랑이 말살정책을 시행한다.¹³⁾ 당시 최남선(1890~1957)은 일본의 이러한 행위에 대응하여 1908년 잡지 ‘소년’에 호랑이 형태론을 제시했다. 그는 한반도 형상을 호랑이로 표상하며 민족주의 인식을 자극했고, 소년들에게 호랑이와 같은 진취적인 기상을 지니라고 주창했다. 또 1926년 호랑이해를 기념하여 동아일보에 7편의 ‘호랑이’ 글을 연재하기도 했다.

즉 호랑이의 기표(1차 의미)는 한반도에 서식했던 고양잇과 표범속에 속하는 용맹스러운 동물이고, 오랜 세월동안 민화, 구비문학 등에 자주 등장한 대한민국을 표상하는 대표동물이다.

3.2 기의(2차 의미)

한국에서의 호랑이는 사람이나 다른 동물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용맹성 이외에도 상서로움, 친근함의 이미지를 갖는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수호랑의 기호학적 해석은 한국에서 호랑이가 갖는 기의(2차의미)인 용맹함, 수호자, 상서로움, 친근함으로 분석된다.

우리는 이미 1차의미에서 호랑이는 고양잇과 표범속에 속하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서식했던 용맹한 동물임을 논의하였다. 이제 2차 의미를 살펴보자.

(1) 용맹함: 맹호

호랑이의 자연적이 생태 특징에도 사나운 용맹함이 있는데, 이는 여러 문헌에서도 확인되고, 전래 동화에서도 이러한 호랑이는 종종 등장한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는 호랑이를 ‘사나운 범’¹⁴⁾으로 해석하였다. 호랑이가

13) https://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2169800

14)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421107&searchKeyword

동물 생태계에서 보여주는 생물학적 속성을 나타내는 동시에, 문헌을 통해 볼 수 있는 문화적 특성인 ‘홍포함’을 언어적으로 표현한 풀이이다. 조선시대에는 사람과 호랑이의 서식 지역이 겹치면서 ‘호랑이 이야기만 해도 얼굴이 새파래지다’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호랑이는 힘과 위협의 상징이 되었다. 이런 맹호 이미지는 문헌 뿐 아니라 조선시대 예술 작품에서도 많이 나타나는데, 김홍도의 ‘죽하맹호도’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그림 1> 죽하맹호도



‘죽하맹호도’ 속의 호랑이는 동물학적 속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문화적으로는 힘과 위협의 상징적인 존재이다. 호랑이는 분명 힘과 위협의 상징이지만, 사람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악귀로 자리 잡은 것이 아니라, 악귀를 쫓는 힘과 위협의 상징이 되었다.

그래서 매년 정초가 되면 궁중과 민가 등지에서 호랑이 그림을 그려 대문이나 중문에 붙이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는 호랑이의 용맹성을 빌어 악귀를 물리친다는 신앙적인 기대감에서 나온 것이다. 즉, 호랑이의 용맹성은 악마적

인 두려움이 아니라, 악귀를 쫓는 선함의 2차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2) 수호자: 산군(山君)

용맹스런 호랑이는 한국 전통 문화에서 ‘수호자’라는 신성한 지위를 부여받았다. 한국의 민간신앙에서 호랑이는 산신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산왕(山王), 산군(山君), 산신령, 산지킴, 산주인, 산영감 등으로 불리며 제 동물의 왕으로 인식되었다.¹⁵⁾ 한국국어대사전에서는 산군을 두 가지로 풀이하고 있다. (1) ‘호랑이’의 다른 명칭으로, 자연계에서의 강력한 힘을 강조한다. (2) 민속 문화 측면에서 ‘산군’은 산림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신령으로, ‘산신령’이라고도 불린다.¹⁶⁾ 이미 사전의 풀이에서, 호랑이는 한국 전통 문화에서의 기복 신앙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톨랑바르트의 기의가 뜻하는 해당 사회 문화가 가진 이데올로기가 사전적 해석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다.

국토의 70%가 산악지대인 한국은 산을 두려워하고 숭배하는 문화가 생길 수 밖에 없었고¹⁷⁾, 사람들은 산에 서식하는 호랑이가 사람을 지켜줄 거라는 민속신앙이 생겼을 듯 하다. 즉, ‘산군’, ‘산신’은 실제 존재하는 동물이 아닌, 그 시대와 그 사회를 살던 사람들이 만들어 낸 민속 신앙 이데올로기 중 하나이고, 이것이 기호화되어 사전에 실리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호랑이를 산신으로 숭배했다는 설은 『삼국지·위지동이전』에서 예족(濊族)이 호랑이를 제사하여 신으로 삼았다(又祭虎以爲神)는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¹⁸⁾ 호랑이가 가지고 있는 기표(1차 의미)를 넘어서서, 민속 신앙 이데올로기에서 수호자 역할을 하는 기의(2차 의

15) 바브로흐 미로슬라브 (2002), pp.57-69.

16)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172976&searchKeywordTo=3

17) <https://folkency.nfm.go.kr/topic/detail/10286?pageType=search&keyword=%EC%82%B0%EC%8B%A0>

18) 김현정·김덕환(2023), p.182

미) 역시 이미 오래전에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호자 이미지는 조선 시대 문화의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데, 문학, 회화, 조각, 무형 민속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표현되었다. 한국 전통 민화 ‘산신도’에서 호랑이는 더 이상 죽하맹하도에서처럼 두려움에 떨게 하는 용명스러운 모습은 없고, 몸집이 큰 친근한 고양이와 비슷한 모습이다.

〈그림 2〉 무신도 산신령과 여산신 (가희민화박물관 소장)



산신도에서 호랑이는 신과 동등한 위치 혹은 친밀한 관계로 그려져 있는데, 민속 신령 속에서의 호랑이가 인간 사회를 수호해 주는 문화기호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호자 호랑이는 고대에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다. 21세기에도 여전히 호랑이 석상이 배치된 마을들이 존재한다. 이미 이 마을들에서 호랑이의 의미는 토속신앙의 수호자이다. 마을 주민들은 악령과 불길한 것들을 쫓아내고 마을의 평안과 번영을 호랑이에 비는 마음에서 마을이나 길에 석상을 세웠을 것이다.

〈그림 3〉 안성시 금광면 신양북리 복거마을 (왼쪽), 인양선 올라가는 길(오른쪽)



수호신으로 기능하는 호랑이 중에서 백호는 빼놓을 수 없는 존재이다.

한국 문화에서 백호는 ‘수호’의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호랑이가 벽사(辟邪: 액을 물리침)할 것이라는 믿음은 고구려 고분벽화에 등장하는 사신(四神) 중 서쪽을 상징하는 백호와 관련이 있다.¹⁹⁾ 이런 수호의 관념은 『楚辭(招魂)』에서도 볼 수 있다. “호랑이와 표범이 아홉 겹의 하늘 관문을 지키면서 아래에서 올라오려는 사람을 죽인다.[虎豹九關, 啄害下人些]”는 구절에서 볼 수 있듯, 호랑이는 문인들의 작품에서 하늘 관문을 지키는 존재로도 인식되었다.²⁰⁾

수호랑의 모티브인 ‘백호’는 국가 공식적으로도 수호의 상징적 의미를 지녔었다. 조선시대에 사용했던 백호기는 크게 의장용(儀仗用)과 의물용(儀物用)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 의장용 백호기는 대가의장(大駕儀仗), 법가의장(法駕儀仗), 소가의장(小駕儀仗)으로 구분되어 국왕 행차 때 군사들이 사용했던 것 발이고, 의물용 백호기는 종묘제례에서 춤을 출 때 쓰던 소품용 것발이다. 우리가 흔히 백호기라고 하면 의장용 백호기를 말하는데, 백호기는 삼국시대부터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문헌상으로는 고려시대에 처음 등장한다.²¹⁾ 이러한 백호기는 조선 시대에 백호를 국가의 상징으로 삼음으로써, 국

19) 박은정(2015), p.285

20) 박은정(2015), p.296

가와 민족의 안전을 지키는 수호자인 백호를 통해 정치적 권위와 사회 질서를 강화하는 전략이라 볼 수 있다.

(3) 길상(상서로움): 호작도(까치호랑이)

한국민속대백과사전에 의하면, 까치호랑이란 호랑이의 종류가 아니라 까치와 호랑이를 함께 그려넣은 그림을 일컫는다²²⁾. 생물학적 호랑이가 이미 문화의 영역으로 넘어온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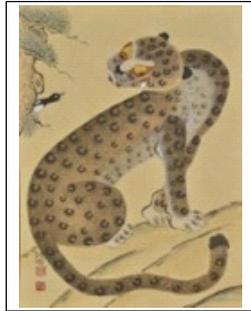
호랑이와 까치가 함께 있는 그림을 호작도(虎鵲圖) 혹은 작호도(鵲虎圖)로 명명한다. 민화에 등장하는 호랑이는 소나무, 토끼, 학, 대나무 등과 같이 그려지는데, 그 중에서도 까치호랑이 그림이 유독 많은 이유는 길상(吉祥)의 관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²³⁾

우리는 앞서, 호랑이의 용맹함이 벽사(闢邪:악한 기운을 물리침)의 기능을 할 정도로 두려움의 존재였다고 논의하였지만, 호작도는 바보스러운 정도로 우스꽝스럽고 친근한 모습의 호랑이의 모습으로, 표범과도 닮아있다.

21) <https://folkency.nfm.go.kr/multimedia/photo/77839/9119>

22) <https://folkency.nfm.go.kr/topic/%EA%B9%8C%EC%B9%98%ED%98%B8%EB%9E%91%EC%9D%B4>

23) 박은정(2015), p.304 참조

〈그림 4〉 까치호랑이²⁴⁾

호랑이와 닮은 표범을 뜻하는 한자 ‘豹’자의 중국어 발음은 ‘bao(바오)’로, 소식을 전한다는 ‘報’자와 발음이 같다. 또한 까치는 중국어로 ‘喜鵲’인데 보통 까치가 울면 기쁜 소식이 온다고 해서 ‘기쁨[喜]’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 이 때문에 호작도가 중국의 ‘報喜圖’에서 유래했다고 보기도 한다.²⁵⁾ 이처럼 호작도는 기쁜 소식, 상서로운 기운 등의 길상과 행운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호작도는 호랑이가 산신의 신탁을, 까치가 서낭신의 신탁을 전달하는 영물로 해석되며, 신의 보호, 길상, 행운을 가져온다는 의미에서 집집마다 수호의 의미로 걸어두기도 하였다²⁶⁾. 이러한 의미로 인해, 2018년 평창 패럴림픽때 호작도가 마스크트로 사용될 예정이기도 했었다²⁷⁾. 이처럼 호랑이는 한국의 토착신앙과 의식에서 특별한 신성적인 존재로 여겨지며, 인간계와 신령계를 연결하는 교량,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한다.

24) <https://www.yna.co.kr/view/PYH20190313067400005>

25) 강영주(2022)

26) 조자용(1983)

27) https://ko.wikipedia.org/wiki/%EC%88%98%ED%98%B8%EB%9E%91%EA%B3%BC_%EB%B0%98%EB%8B%A4%EB%B9%84

3.3 수호랑

수호랑의 모티브는 아기 백호이다. 백호의 의미는 앞서 논의하였듯, 용맹, 길상을 뜻할 뿐 아니라 국가 수호의 상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백호는 청룡, 주작, 현무와 함께 고구려 고분벽화에 출현한 이후²⁸⁾, 현대 미술 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등장한다. 호작도에서도 보이는데, 선암사 장경각의 백호도, 쌍계사 호작도가 그 예이다.

〈그림 5〉 순천 선암사 장경각 백호도 (왼쪽), 통도사 명부전 좌측 까치 호랑이(오른쪽)²⁹⁾



사찰벽화에서 백호가 보이는 이유는 토착 종교와 결합된 신격화라고 볼 수 있다. 인도에서는 불교의 수호신으로 코끼리를, 동남아에서는 뱀을, 한국에서는 호랑이를 내세웠다. 호랑이가 대승적 차원에서 불법수호신이 되었는데, 한반도에 살았다는 기록이 없는 백호는 종교적으로 신성하고 상징적인 성격을 가진다.³⁰⁾

28) <https://www.mmca.go.kr/upload/temp/2018/02/2018020202063396913663.pdf>

29) https://www.cha.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ntId=85139&bbsId=BBSMSTR_1008

30) <https://www.ggb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538>

한국 문화 속에 등장하는 흰색 동물은 상징성을 지닌다. 국가 유산 진흥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민족은 흰색을 숭상하는 민족으로, 흰색은 민족의 색이자 태양의 색이요, 하늘의 색이라 한다. 고구려의 건국신화에 따르면 해모수는 오룡거를, 휘하들은 흰고니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또한, 유화부인을 따라 다니며 고주몽을 잉태시킨 햇빛도 흰색이다. 이뿐만 아니라 혁거세의 탄생에 알린 말 등은 모두 흰색이거나 흰색의 상징이다. 신화에서 하늘과 태양과 관계있는 흰 기운, 흰 동물이 등장하는 것은 하늘의 뜻을 받드는 왕이라는 우리 민족의 원초적 신화가 숨어 있다. 이처럼 흰색은 신화적으로 새로움과 상서로움의 예조(豫兆)이고, 흰색 동물을 신성시하여, 예로부터 백호, 백사, 백마, 백록, 흰 까치, 흰 참새 등 흰색 동물의 출현은 좋은 일의 징조로 여겼다.³¹⁾ 수호랑은 백호 중에서도 아기 백호를 나타낸다.

〈그림 6〉 수호랑³²⁾



수호랑 사진을 보면 코와 발바닥이 분홍색이다. 이는 아기 고양이와 강아지들이 가지는 특징 중 하나이다³³⁾. 아기 강아지와 고양이는 성장에 따라 코

31) <https://www.kh.or.kr/brd/board/741/L/menu/740?brdType=R&thisPage=1&bbIdx=101861&searchField=&searchText=>

32) <https://olympics.com/ko/olympic-games/pyeongchang-2018/mascot>

33) <https://petrico.site/%EA%B0%95%EC%95%84%EC%A7%80-%EB%B0%9C%EB%B0%94%EB%8B%A5-%EC%83%89-%EB%B3%80%ED%95%98%EB%8A%94-%EC%9D%B4%EC%9C%A0-4%EA%B0%80%EC%A7%80-%EC%86%90%EC%89%AC%EC%9A%>

와 발바닥 색깔이 변하는데, 분홍색으로 아기호랑이임을 표현해내었다. 아기 호랑이는 고양이과의 포유류로, 분홍색의 코와 발바닥을 이용해서 수호랑이 아기 호랑이임을 표현해내었다.

또한 실제 호랑이와는 다르게 다른 머리와 몸집의 비율을 1:1로 디자인하였는데, 이는 둥글둥글한 윤곽과 함께 친근함을 표현하였다. 호돌이와 다르게 의상이나 장신구를 착용하지 않은 것은, 순수 백호의 이미지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이고, 한민족의 상서로운 기운인 흰색을 돋보이게 함으로 보인다.

둥글고 작은 눈, 미소짓는 입꼬리는 천진 난만한 아이의 표정을 닮았고, 귀의 음영처리를 사용하여 수호랑의 입체적인 생동감을 표현하였다. 또한 주먹을 쥔 자세는 힘과 역동성을 상징하고, 배에 오른기와 개최지의 약칭을 표기하여 올림픽 개최도시를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국가 안녕의 수호자이자 흰색 민족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백호를 수호랑의 모티브로 삼되, 아기 백호를 내세워서 용맹하고 무서운 기운을 없애고 친근하고 생동적으로 디자인하였다. 실존동물이 아닌 백호가 가지는 신성한 상징성은 88년도 올림픽 호돌이를 뛰어넘을 뿐 아니라, 승계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

4. 문화기호학으로 본 판다와 빙든둔

4.1 기표(1차 의미)

판다는 곰과에 속하는 동물로, ‘판다외교’라는 단어가 생길만큼 중국을 대표하는 동물이다.

B4-%EA%B4%80%EB%A6%AC%EB%B0%A9%EB%B2%95/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다라고 하면 검은색과 흰색의 자이언트판다를 가리킬 때가 많은데, 보통 자이언트를 생략하고 판다라고 한다. 그러나 자이언트판다보다 먼저 판다라는 이름이 붙은 레서판다가 있는데, 몸길이가 자이언트판다보다 작고 털이 갈색인 동물이다. 레서판다의 분류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판다속에는 속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³⁴⁾. 본고에서 논의하는 판다는 판다속에 속한 검은색 흰색의 털을 가진 판다로, 중국어로는 大熊猫라고 하는 중국을 대표하는 동물이다.

중국 국가임업초원국(中國國家林業和草原局)의 공식 보고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중국의 야생 자이언트 판다 개체군은 총 1,900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이래로 중국은 국제 협력을 통한 자이언트 판다 보전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일본, 한국, 러시아, 미국, 오스트리아, 태국, 스페인 등 20개국의 26개 연구 기관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공동 연구를 수행했는데, 이러한 국제 협력 노력의 일환으로, 2023년 말 현재 해외에 서식하는 자이언트 판다의 개체 수는 총 56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³⁵⁾

판다는 곰과, 식육목에 속하는 포유동물이다.³⁶⁾ 초식동물이라고 알려진 판다는 생물 분류학적 관점에서 식육목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주로 그들의 진화 역사에 따른 형태학적 특징에 기인한다. 현재의 자이언트 판다는 고도로 특화된 초식성 행동을 보이며, 그들의 식단은 거의 전적으로 대나무에 의존한다. 대나무는 영양가가 낮고 섬유질이 높은 식물로, 충분한 영양분을 추출해 내기 위해서는 현저한 저작 능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자이언트 판다의 하악근, 특히 측두하악근은 장기간의 적응 진화를 거쳐 비정상적으로 발달하게 되었다. 이러한 독특한 근육 구조는 그들의 교합력을 강화시켜 단단한 대나무 줄기와 잎을 효과적으로 분쇄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고도로 적응된 근육 발달

34) <https://animalia.bio/ko/ailuropoda>

35) <https://www.chinanews.com.cn/sh/2024/01-25/10152793.shtml>

36) 高耀亭(1987), p.114 참조.

은 자이언트 판다의 생존에 매우 중요하며, 필요한 에너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대량의 대나무를 소화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저작근의 발달 외에도, 판다의 흑백 털은 그들의 전형적인 생물학적 특징이다. 판다의 흑백의 털 색깔은 자이언트 판다가 대나무 숲 환경에서 위장하는 데 도움을 준다.³⁷⁾ 이는 포식자와 천적으로부터의 위험을 피하고, 자이언트 판다가 야생에서 안전하게 생존할 수 있게 한다.

또한, 흑백색의 털은 체온 조절과 방습 측면에서도 중요한 기능을 한다.³⁸⁾ 판다는 주로 해발 2,600미터에서 3,500미터의 산악 지역에 서식하는데, 이 지역들은 기후가 춥고 눈과 바람에 노출되어 있다. 판다는 흑백 털이 지닌 유성 특징으로 인해, 수분 침투를 최대한 막으며 습한 환경에서도 건조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중국에서 판다가 서식한 것은 아주 오래전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발견된 자이언트 판다 중 가장 오래된 동물인 *Ailuarctos lufengensis*의 화석은 중국 윈난(云南)성 루핑(祿丰)과 위안머우(元謀)에서 발굴되었으며, 지질학적 연대는 약 800만년 전이다.³⁹⁾ 이를 통해, 판다는 최소 800만 년 동안 지구상에 살았다고 알려져 있다.

중국 신화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국 산시성(陝西省) 한중시(漢中市)의 카르스트 동굴에서 보존 상태가 양호한 희귀한 판다 두개골 화석이 발견되었다. 이 화석의 시대는 제4기 중기 갱신세 후기부터 후기 갱신세에 해당하며, 약 20만 년 전부터 1만 년 전 사이의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섬서성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비교적 양호한 보존 상태를 가진 자이언트 판다 화석이다.⁴⁰⁾

37) https://www.cas.cn/cm/202111/t20211102_4812037.shtml

38) https://mp.weixin.qq.com/s?__biz=MzI5OTQ2NDE1OA==&mid=2247497654&idx=2&sn=7d1980d037b59a1e97592c32d1881a69&chksm=ec949307dbe31a11bbb8355c12a03b00c6b330a2a6c9527e52286b2c59d941c23756fb41dbd2&scene=27

39) 胡錦羣(2008) 참조.

40) https://www.sohu.com/a/799323834_100001695

즉, 판다의 기표(1차 의미)는 오래전부터 중국에서 서식했던 흑백색의 털을 가진 곰과 식육목에 해당하는 포유류지만 덩치가 큰 초식동물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4.2 2차의미

판다의 화석이 800만년 전에 윈난성에서 발견되었다고는 하지만, 판다의 고문헌에 나오는 판다와 실제 판다의 명칭에는 차이가 있다. 이는 호랑이의 명칭이 고대로부터 이어져 온 것과는 분명히 다른 지점이다.

중국 고대에서 판다는 貘(비), 白羆(백비), 貔貅(비휴), 貘(맥), 食鐵獸(식철수) 등 30여 종 이상의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었다.⁴¹⁾ 『사기(史記)』 「오제본기(五帝本紀)」에는 비휴(貔貅, 판다)를 동원하여 반천(阪泉)에서 대전을 벌이도록 명령했다고 기록되어 있고⁴²⁾ 『산해경(山海經)』에는 食鐵獸(식철수)는 철을 먹는다. 그 모습은 곰과 같고, 흑백의 반점이 있으며, 힘이 세고, 대나무와 나무를 먹는다. 병사를 막을 수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⁴³⁾ 건륭(乾隆) 연간의 『유양직예주총지(西陽直隸州總志)』에는 맥(貘)은 철기를 먹는다고 되어 있고, 한(漢)대의 『어아(爾雅)』에는 맥(貘)은 검은색이며 대나무를 먹는다는 기록이 있다.⁴⁴⁾ 동한(東漢)의 허신(許慎)이 저술한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는 "맥(貘)은 곰과 비슷하며 검은 황색이고, 촉(蜀) 지방에서 산출된다고 설명하고 있다.⁴⁵⁾ 동한(東漢)의 허신(許慎)이 저술한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는 맥(貘)은 곰과 비슷하며 검은 황색이고, 촉(蜀) 지방에서 산다고 설명하고 있다.⁴⁶⁾ 진한(秦漢, 기원전 221년-220년)에서 당대에 이르기까지, 판다는

41) 孫前(2009)

42) 趙光勇, 呂xin峰(2019).

43) 郭璞(2019).

44) Ran Chongwen(2009).

45) 郭璞(2019).

46) 徐惟賢(2007).

‘食鐵獸’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이 명칭은 동한(東漢)의 陸玑와 진대(晉代)의 郭璞의 기록에서 유래된 것으로, 그들은 판다가 철과 구리를 먹을 수 있다고 믿었다.⁴⁷⁾ 또한, 당나라 때 일본에 두 마리의 판다를 보냈다는 기록이 있으며, 당시에는 판다를 두고 ‘白羆’이라 불렀다고 한다.⁴⁸⁾

위의 언급 중 현재 판다와 가장 비슷한 부분은 대나무를 먹고, 곰과 비슷하며 축 지방에서 산다는 기술로 보인다. 1869년 프랑스 박물학자 Jean Pierre Armand David (1826-1900)가 중국 사천성 야안시 부근에서 과학 연구를 하던 중 판다를 발견하고 털의 색 특성에 따라 이름을 ‘Ursus melanolcucus’라고 이름 지었으며 한자로 黑白熊(흑백곰)이라고 번역했다. 이후 중국에서 猫熊이라고 불리었으나, 점차 시간이 지나며 현재의 명칭인 熊猫(판다), 大猫熊(자이언트판다) 등의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⁴⁹⁾

판다라는 명칭은 20세기가 되어서야 존재하기 시작했으나, 판다가 그 이전부터 중국에 살았던 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상태에서, 중국의 학계는 고대문헌에서 판다의 흔적을 찾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력은 판다의 다양한 이름 중 하나인 騶虞(추우)에서도 드러난다. 이미 『산해경』에서는 철을 먹는 동물이라는 기술로 비범함이 드러나 있지만, 흑백의 반점이 있고 대나무를 먹는 곰과 같은 동물이라는 점에서, 또한 판다가 가마솥을 훔는 습성이 있다는 게 현대인에게 알려지면서, 산해경의 식철수는 판다라고 보는 견해가 주를 이룬다.

하지만 騶虞는 좀 다르다. 추우는 중국 신화에 출현하는 자비롭고 의로운 짐승이라 해서 義獸(의수)라 불린다. 陸璣의 『毛詩草木鳥獸蟲魚疏(三國吳)』에 의하면, “騶虞는 白虎의 모습에 검은 무늬가 있고, 꼬리는 채찍보다 길고, 살아있는 동물을 먹지 않으며, 살아있는 풀을 밟지 않는다. 군왕이 덕이 있으니 그 덕에 대한 지극함이 드러난다”⁵⁰⁾라고 되어 있다. 재미있는 것은 騶虞의

47) 陸玑(2023).

48) <https://www.scmp.com/news/china/diplomacy/article/3222175/how-has-chinas-pan-da-diplomacy-evolved-and-where-are-its-stars-now>

49) 楊鏞, 高富華(2019)

외형에 대한 묘사를 흰 호랑이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 7> 추우(騶虞): 청대(清代) 오임신(吳任臣) 근문당도본(近文堂圖本)⁵¹⁾



호랑이의 모습을 한 騶虞는 『山海經』 「海內北經」에도 등장한다. 임씨국에 “임씨국(林氏國)에 살며 크기는 호랑이와 비슷하고, 오색 빛깔에 꼬리가 몸보다 길며 이것을 타면 1000리를 갈 수 있다⁵²⁾”고 되어 있다. 오색빛깔에 1000리를 갈 수 있다는 騶虞는 이미 선계(仙界)의 동물처럼 묘사가 되어 있는데, 『玉篇』에서도 의로운 짐승이며, 최고의 덕을 갖추어야 騶虞를 보면 감응할 수 있다고 추상적으로 기술해놓았다.⁵³⁾

이 외에도 騶虞에 대한 기록은 많은데, 기술들은 2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는 호랑이의 모습을 하였지만 살아있는 생물을 먹지 않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짐승에 대한 묘사가 지극히 가치 지향적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騶虞를 어떻게 판다라고 보는 것인가.

趙序茅(2018)는 판다가 식육목에 속하지만 대나무를 먹는다는 점과 임씨국이 현재 하북성 일대인데 고대에 판다 서식지라는 점에서 騶虞를 판다의 전

50) 騶虞, 白虎黑文, 尾長於驅, 不食生物, 不履生草, 應信而至者也.

51) 吳昊(2024)에서 재인용

52) 林氏國有珍獸, 大若虎, 五彩畢具, 尾長于身, 名曰騶虞, 乘之日行千里

53) 騶虞義獸, 至德所感, 則見

신으로 보았다.⁵⁴⁾

중요한 것은 騶虞가 판다의 전신이든 아니든, 騶虞를 판다의 전신으로 보려는 작업들이 계속 된다는 점이다. 騶虞는 문헌 안에서 용맹스럽지만 최고의 덕을 가진 의로운 짐승로 기술이 되어 있고, 중국 안에서는 판다의 2차의미를 마치 선계에 사는 듯한 평화롭고 의로운 동물로 각인시키려는 듯 하다. 騶虞가 평화를 상징한다는 기록은 『資治通鑑·卷六』에도 나와 있는데, 휴전과 화해의 의도를 전하고 싶을 때, ‘騶虞깃발’을 높이 든다고 되어 있다.⁵⁵⁾ 당시 騶虞의 형상이 새겨진 깃발은 병사들을 해산시키고 전쟁을 종료하는 상징으로 사용되었다.⁵⁶⁾

이러한 騶虞는 고대로부터 보물이 될 수 밖에 없었다. 『史記·周本紀』에는 駘虞가 주(周)나라 사람들이 희창(姬昌)을 구하기 위해 상(商)나라 주왕(紂王)에게 바친 세 가지 진귀한 보물 중 하나였고, 이로 인해 주나라 때부터 제왕들의 감사와 숭배를 받았다고 되어 있다. 또한 『시경(詩經)』에는 신수(神獸)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들로 보아 騶虞는 고대부터 통치자의 덕과 맞물려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으로 알 수 있다.⁵⁷⁾

생명을 해하지 않고, 평화와 화해를 상징하는 판다는 도교와도 관련이 있다. 도교는 생명을 살육하는 것을 악행으로 간주하는데, 판다의 서식지인 사천은 도교의 발원지이자 중요한 전파 지역이다. 재미있는 것은 도교가 창립된 이래, 그 전파 지역이 거의 모두 판다의 서식지와 겹친다는 점이다.⁵⁸⁾ 이러한 현상은 판다가 도교 문화에서 특별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게 하였다. 음양(陰陽)의 상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태극도는 판다의 흑백색조를 띄고 있는데,⁵⁹⁾ 판다의 평화와 화해를 뜻하는 상징적 의미는 자연을 경외하고 생명을

54) 이영섭(2019)에서 재인용

55) 晉制, 有白虎幡、駘虞幡。向虎威猛主殺, 故以督戰; 駘虞仁獸, 故以解兵

56) <http://xh.5156edu.com/html5/4676.html>

57) 吳昊(2024)에서 재인용.

58) http://scdfz.sc.gov.cn/whzh/bsjy/jndxmxfx150zn/content_26593

59) https://culture.china.com/art/artistic/11170805/20200108/37686652_2.html

존중하는 도교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그림 8> 도교 상징 문양⁶⁰⁾



즉, 판다는 중국의 정치적 의도이든 아니든, 지금의 명칭과 다른 명칭을 가지고 있는 고대문헌의 신비로운 동물에서 그 흔적을 찾는 작업이 계속 되고 있다. 대부분은 힘이 세고 용맹스럽지만, 생명을 해치지 않는 평화와 화해의 상징인 의로운 짐승으로 이미지를 정비하려는 상황으로 보인다. 또한 오색빛깔의 신비롭고 하루에 천리를 간다는 것처럼 선계 동물의 이미지도 가지고 있다.

4.3 빙둔둔

힘이 세고 용맹스럽지만, 평화를 존중하고 인간계와 신계를 넘나드는 신비로움을 장착한 판다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冰墩墩(빙둔둔)’으로 등장하였다.

60) <http://www.taoist.org.cn/loadData.do>

〈그림 9〉 빙墩墩⁶¹⁾

빙墩墩은 전통적인 판다의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베이징 동계올림픽 마스코트로, 그 외형은 얼음으로 둘러싸인 듯 보인다. 이는 동계올림픽의 차가운 겨울 테마를 반영함과 동시에, 기존의 2D에 머물지 않은 기술의 정교함과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강조한다. IT 강국이 된 중국의 과학 기술과 글로벌 경쟁력을 상징하는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중국의 과학기술을 표현하려는 노력은 빙墩墩의 얼굴을 둘러싼 다채로운 색상의 선에서도 보인다. 미래세계를 연상시킬 수 있는 색상과 디자인을 결합하여 5G 기술을 암시하였다. 급변하는 세계화 시대에 기술적 경쟁력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3D와 미래지향적 색채로 과학기술 강국임을 나타내고자 했다면, 디자인은 최대한 친근함을 나타내려고 노력하였다. 빙墩墩의 손바닥에 있는 하트 모양은 귀여움을 더해주고, 간결한 선과 단순한 색감의 외형, 둥근 선들, 미소를 띤 얼굴은 판다의 거칠고 힘이 센 모습을 극소화시키고 친근함을 표현하고 있다.

IT 강국에 살고 있는 평화를 사랑하는 신비로운 동물 빙墩墩이 동계올림픽을 매개로 세계인과 만나는 지점에는 가슴에 새긴 올림픽 오륜기가 있다. 중국은 용맹스럽지만 평화를 사랑하는 판다의 상징적 의미를 21세기 기술과 결합시켜 동계올림픽의 홍보효과를 극대화하였다.

빙墩墩은 중국의 기술력과 문화적 자부심을 담아내어, 중국의 문화적 위상

61) <https://olympics.com/ko/olympic-games/beijing-2022/mascot>

을 높이고, 혁신적인 기술력을 알리는 데 특정한 역할을 해 내었다.

5. 결론

우리는 위에서 호랑이와 판다의 기표와 기의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제작된 수호랑과 빙墩墩을 살펴 보았다. 퐁랑바르트의 기의는 사회문화적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는 부분이어서, 호랑이와 판다의 기의에서 각각의 국가가 내세우려 하는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호랑이와 판다가 국가 마스코트가 된 공통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두 동물 모두 해당국가에서 오래전부터 서식했지만, 개체수가 급감한 후 없어져서 전설처럼 존재하거나, 국가가 나서서 보존하고 있는 동물이다.

둘째, 두 동물 모두 덩치가 크고 힘이 세고 용맹스런 동물로 해당국가 국민들에게 인식되어 있다.

셋째, 두 동물 모두 토속 신앙과 결합되어 신비롭고 신성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넷째, 두 동물 모두 고대 문헌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로 표현된다.

하지만 고대 문헌에서의 기록에는 차이가 보인다.

호랑이는 고대 문헌에서도 호랑이로 적시되어 있어서 현재의 호랑이의 흔적을 찾는데 별 문제가 없지만, 판다의 경우는 신화 속에서 도덕적으로 우위를 가졌던 동물을 판다로 연결 짓는 노력들이 보였다. 국가 정체성을 나타내는 의지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호랑이는 사람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동물이었지만, 악마화 시켰다기보다는 악귀를 쫓는 든든한 용맹스러움을 가진 동물로, 이러한 정체성은 민속신앙과 결합하여 상서로운 국가 수호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한국의 사회문화적 이데올로기에서 호랑이에게 부여된 이미지이다. 그 중에서도 백호는 한국에는 서식하지 않았지만 신비로운 이미지를 지니고 있어서, 수호랑은 호랑이

의 기의에 신성함과 신비로움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판다는 용맹스러운 식육목에 속하지만 생명을 해치지 않는 평화지향적인 동물로, 인간계와 선계를 넘나드는 듯한 신비로움과 의로움을 지니고 있다. 이것이 중국 사회문화가 지향하는 이데올로기일 것이다.

수호랑과 빙墩墩은 이러한 이데올로기에서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마스코트로 가장 큰 문화축제라고 할 수 있는 올림픽에서 각국의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해 내었고, 이는 산업으로도 연결이 되었다. 산업적 측면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參考文獻

- 曹勇(2008), 「北京奥运会对外传播主要标识的符号学审视」, 硕士学位论文, 北京体育大学.
- (清)冯世瀛, 冉崇文(2009), 『(精)酉阳直隶州总志』, 巴蜀书社
- 高耀亭(1987), 『中国动物志 兽纲 第八卷 食肉目』, 科学出版社
- (晋)郭璞(2019), 『山海经』, 中国书店
- (晋)郭璞(2019), 『尔雅』, 上海古籍出版社
- 胡锦羸(2008), 「大熊猫的起源与演化」, 『中国林业』
- 姜宇(2022), 「传统文化元素在吉祥物设计中的艺术表现」, 硕士学位论文, 天津美术学院.
- (汉)毛亨傳(2018), 『毛傳鄭箋』, 中华书局.
- 刘凌霄(2019), 「吉祥物在旅游品牌推广中的设计与应用」, 硕士学位论文, 曲阜师范大学.
- (吴)陆玑(2023), 『毛诗草木鸟兽虫鱼疏』, 中华书局.
- (宋)司马光(2011), 『資治通鑑』, 中华书局.
- 孙前(2009), 『大熊猫文化笔记[M]』, 北京:五洲传播出版社
- 吴昊(2024), 「神兽与异兽——从虎看东、西方动物图像的文化意象之异同」, 『中外文化交流』
- 徐惟贤(2007), 『說文解字注』, 鳳凰出版社.
- 徐硕 (2020), 「冬奥会吉祥物设计的民族文化探究」, 硕士学位论文, 吉林艺术学院.
- 杨铎, 高富华(2019). 「“大熊猫”中文名称的演变——基于民国时期媒体的考察」, 『长江师范学院学报』
- 赵光勇, 吕新峰(2019), 『五帝本纪(精)/史记研究集成十二本纪』, 西北大学出版社.
- 赵丽君, 郑保卫(2017), 「国家形象视角的“熊猫外交”研究」, 『新闻爱好者』
- (清)张玉书(2017), 『康熙字典』, 上海书店出版社.

- 강영주(2022), 「상서와 길상, 해학의 변주: 사찰 벽화의 虎圖 도상 연구」, 『불교미술사학』 34.
- 김현권 역(2022), 『일반언어학 강의』, 그린비.
- 김현정·김덕환(2023), 「호랑이 민화의 상징과 문화콘텐츠 활용방안 연구」, 『유라시아연구』 20.
- 롤랑바르트 저, 변광배 역(2015), 『롤랑바르트, 마지막 강의』, 민음사.
- 바브로흐 미로슬라브(2002), 「山神圖에 나타난 山神의 모습에 關하여」, 『한국무속학』 4.
- 박소연(2014), 「올림픽 마스크트 디자인 선호도 연구: 친근성과 독창성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포럼』 44.
- 박은정(2015), 「문학: 근대 이전 호랑이 상징성 고찰」, 『온지논총』 43.
- 방청의, & 한석원(2021), 「퍼스 기호학을 통해 아시안게임 마스크트 민족문화 상징에 관한 연구」,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연구』 78.
- 이영섭(2019), 「中國 歷代 文獻에서 판다의 흔적 찾기 (II)-騶虞說과 獬說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孔子學』 39.
- 코블리 폴(2022), 『지적 대화를 위한 교양인의 기호학: 한 권으로 난해한 기호학을 끝내는 지식 교양서』, 팬덤북스.
- 에이스케 고마즈 편. 김현권 역(2018), 『페르디낭 드 소쉬르 제 3 차 일반언어학 강의』, 그린비.
- 한혜진(2015), 「평창 동계올림픽의 마스크트를 위한 캐릭터 색채 분석」, 『일러스트레이션포럼』 16.
- 황순선(2014), 「국가브랜드로서 호랑이를 이용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마스크트 디자인 안」, 『일러스트레이션포럼』 15.
- 조자용(1983), 「전통 속의 호랑이」, 『한국학』 16.
- <https://olympics.com/ioc/news/olympic-games-mascots>
- <https://olympics.com/ko/olympic-games/pyeongchang-2018/mascot>
- <https://olympics.com/ko/olympic-games/beijing-2022/mascot>
- <https://folkency.nfm.go.kr/topic/detail/10284>.
- <https://www.segye.com/newsView/20121225022328>.

<https://www.segye.com/newsView/20211219509896>.
<https://www.ulsan.go.kr/s/bangucheonpetroglyphs/contents.ulsan?mId=001001002000000000>
https://www.ngii.go.kr/kor/board/view.do?sq=56154&board_code=report.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421107&searchKeyWordTo=3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172976&searchKeyWordTo=3
<https://folkency.nfm.go.kr/topic/detail/10286?pageType=search&keyword=%EC%82%B0%EC%8B%A0>
<https://folkency.nfm.go.kr/multimedia/photo/77839/9119>
<https://folkency.nfm.go.kr/topic/%EA%B9%8C%EC%B9%98%ED%98%B8%EB%9E%91%EC%9D%B4>
<https://www.yna.co.kr/view/PYH20190313067400005>.
<https://www.mmca.go.kr/upload/temp/2018/02/2018020202063396913663.pdf>.
https://www.cha.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85139&bbsId=BBS_MSTR_1008
<https://www.ggb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538>.
<https://www.kh.or.kr/brd/board/741/L/menu/740?brdType>.
<https://animalia.bio/ko/giant-panda?taxonomy=240> (Animalia: 대왕판다)
<https://www.chinanews.com.cn/sh/2024/01-25/10152793.shtml>.
https://www.cas.cn/cm/202111/t20211102_4812037.shtml.
https://mp.weixin.qq.com/s?__biz=MzI5OTQ2NDE1OA==&mid=2247497654&idx=2&sn=7d1980d037b59a1e97592c32d1881a69&chksm=ec949307d8e31a11bbb8355c12a03b00c6b330a2a6c9527e52286b2c59d941c23756fb41dbd2&scene=27.
https://www.sohu.com/a/799323834_100001695.
<http://www.news.cn/ci/20240808/90702e860fac41bcabd819d9e6859a4b/c.html>.
<http://xh.5156edu.com/html5/4676.html>

http://scdfz.sc.gov.cn/whzh/bsjy/jndxmkxfx150zn/content_26593.

<https://www.scmp.com/news/china/diplomacy/article/3222175/how-has-chinas-panda-diplomacy-evolved-and-where-are-its-stars-now>.

<http://xh.5156edu.com/html5/4676.html>

Abstract

Analysis of 'Suhorang' and 'Bingdundun' from the Perspective of Cultural Semiotics

Wei Tinglan · Jhong, So Young

This paper analyzed the mascot of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s, 'Soohorang', and the mascot of the 2022 Beijing Winter Olympics, 'Bingdundun', using Roland BartheThe primary meaning of the Korean tiger is a brave animal belonging to the cat family that inhabited the Korean Peninsula, and it is the representative animal of the Republic of Korea that has appeared frequently in folktales and oral literature for a long time. The secondary meaning is bravery, protection, and good omen. Suhorang was created based on the motif of a white tiger, and means a guardian deity that protects the peace of the country, but it was designed to be friendly and lively by putting forward a baby white tiger to remove scary aura.The sacred symbolism of the white tiger, which is not a real animal, not only surpasses Hodori of the 1988 Olympics, but can also be seen as its successor. The primary meaning of the Chinese panda is an animal belonging to the bear and panda order that has lived in China for 8 million years and mainly eats bamboo, and the secondary meaning is a brave but compassionate and sacred animal that crosses the human and divine worlds. Bingdundun is the mascot based on this panda, and it was created with a futuristic image that shows China's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prowess and global competitiveness, breaking away from the traditional 2D design. The Winter Olympics are presented in 3D with an ice theme, showing that the country is a powerhouse in science and technology. In addition, it was designed with round lines and a smile to maximize softness, and the heart shape on its palm adds friendliness and cuteness.

Key words : Cultural Semiotics , Suhorang, Bingdundun, Korean tiger, Chinese panda

투 고 일 : 2024. 10. 10. / 심 사 일 : 2024. 10. 15.~ 2024. 11. 15. / 게재확정일 : 2024. 11. 20.